

수시 '77.3%' 역대 최대... 서울 주요대 정시 인원 확대

2020학년도 대입전형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시행계획 발표
대입 전체 모집인원 34만7866명
학생부 선발인원 전년보다 1.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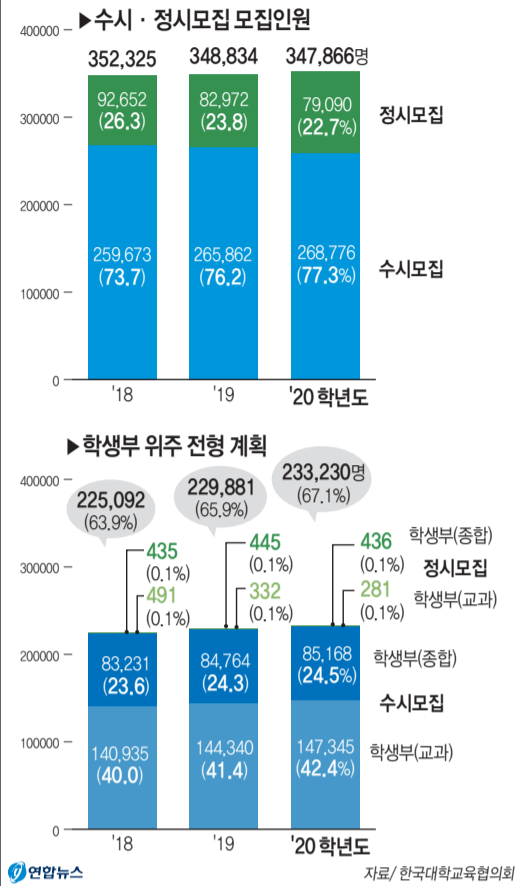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율이 역대 최대 규모인 77.3%로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 정시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증가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20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866명으로 전년보다 968명 감소한 가운데, 학생부 우수 전형인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6만8766명(77.3%)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수능 우수 전형인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7만9090명(22.7%)로 낮아졌다. 수시모집 비중은 지난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비율을 처음으로 앞지른 이후 지속 상승 추세다.

학생부 우수 선발비율은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65.9%에 이어 2020학년도에 67.1%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 고2가 치르는 내년 입시의 학생부 우수 선발 비율은 올해보다 1.2%p 확대된다. 전체적으로 수시모집 인원 중 86.5%는 학생부 우수 전형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87.6%는 수능 우수 전형으로 선발한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학생부종합전형선발인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원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20학년도 학종 선발 인원은 8만5604명(24.6%)로 전년보다 0.2%p 높아졌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학종 비율도 2019학년도 43.6%에서 2020학년도 43.7% 다소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위주로 33개 대학이 뽑는 논술 우수 전형 모집인원은 전년(1만3310명) 대비 1164명 감소한 1만2146명이다. 논술전형을 치르는 수도권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등이 고, 지방대 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등이 논술전형을 치른다.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은 4만 6327명으로 전년 대비 2956명(0.9%p ↑) 더 뽑고,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도 83개교에서 1만6127명을 선발해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논술전형은 감소한 반면, 정시모집 인원은 확대돼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다. 대학별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요대의 정시모집 최종 선발인원은 4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지역 주요 10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정원의 포함)은 1만552명으로 전년(9238명) 대비 14.2%나 늘었다. 일부(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대학은 오히려 정시 선발비율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 소재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2019학년도에 4만4714명에서 2020학년도엔 3만9756명으로 11.1%(4958명)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지역 주요대를 지원하는 상위권 수험생은 수능 위주로, 중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학생부 우수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주요 10개 대학의 논술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804명(15.7%) 감소했다. 대학별 논술 선발인원을 보면, 성균관대 363명, 이화여대 127명, 서강대 111명, 중앙대·경희대 각 56명, 한국외대 53명, 연세대 36명, 한양대 2명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연세대가 전체 전형에서 폐지했고, 서강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폐지했으나, 나머지 주요대학들의 수시모집 수능최저는 전년과 같은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중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학생부 비중이 커졌고, 상위권 수험생이 치르는 수도권 주요대의 경우 수능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감안하면 정시모집 인원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학년도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최종 선발 인원은 수시모집 이월 인원 발생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서울대 정시모집 인원은 당초 20.9%에서 26.1%로 증가했고, 연세대(28.0%→36.2%), 고려대(15.0%→19.6%), 성균관대(20.2%→25.4%), 서강대(24.3%→29.9%), 한양대(30.3%→31.4%), 중앙대(31.2%→33.3%), 경희대(27.2%→28.9%), 이화여대(26.1%→29.1%), 한국외대(35.9%→37.4%) 등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당초 25.5%에서 29.3%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대 지리교육과(72.2%)와 지구과학교육과(61.9%), 연세대 독어독문학과(63.3%)·경제학과(55.4%)·경영학과(51.6%)·수학과(55.3%) 등 일부 학과의 경우 정시모집 비율이 수시모집 비율을 앞질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주요대학 정시 선발비율이 늘었고,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불이익을 극복하는 논술전형이 축소돼 이들의 수능 중요도가 현재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3.7%~8.2%p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시 최종 선발이 30% 초반대 대학들의 경우 최종 정시모집 선발비율이 4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연세대 신학대 '원두우 정신으로' 토크콘서트 개최

연세대학교는 신학대학교와 연합신학대학원이 2일 낮 12시 원두우 신학관 채플실에서 '원두우 정신으로 혁신하라' 주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원두우는 연세대를 창립한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글 이름이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뇌분석 기반 창업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브레인 OS연구소 안진훈 대표와 국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520여 명으로 구성된 CS

R포럼 김도영 대표, 아카데미라운지를 창업한 박상규 대표, ATK 크리스천 창업투자회사 노태경 대표, 슈퍼모델 박물관 씨 등이 참가해 창업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권수영 연세대 신학대학교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은 "청년들이 한국교회와 다양한 전문가와 만나 사회혁신의 꿈을 키우고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1분기 채용공고 4건 중 1건 '경력만 채용'

경력만 '52%' 모두채용 '13.4%'
직종별 IT·전문직·디자인·경영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경력 채용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채용공고 4건 중 1건은 경력만 뽑는 공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올해 1분기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55만3278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만' 채용하는 공고가 전체의 26.6%를 차지해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8%)에 비해 3.3배 많았다고 1일 밝혔다. '경력만 채용'은 52%,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 공고는 13.4%였다. 업종과 직종별로 IT 부문에서 경력 채용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술력과 관련한 산업체 경험을 중시하는 업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경력직 채용 비중을 보면, 'IT·웹·통신'(47.1%), '제조·화학'(40.9%), '건설업'(35.3%), '기관·협회'(35.2%), '미디어·디자인'(33.9%), '의료·제약·복지'(28.4%), '판매·유통'(2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IT·인터넷'(56.3%), '전문직'(47.3%), '디자인'(42.8%), '경영·사무'(37.5%), '건설'(36.7%), '생산·

제조'(32.3%), '유통·무역'(31.9%), '미디어'(27.1%), '영업·고객상담'(21.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신입만 채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8.3%)이 꼽혔다. 이어 '미디어·디자인'(7.9%), '기관·협회'(7.8%), '판매·유통'(7.6%), '제조·화학'(7.5%), '서비스업'(5.8%), 'IT·웹·통신'(5.7%) 등의 순으로 신입 채용 공고가 많았다. 신입 채용 공고가 많은 직종으로는 '특수계층·공공'(8.9%), '생산·제조'(8.2%), '건설'(7.3%), '유통·무역'(7.3%), '전문직'(6.8%), '미디어'(6.6%), '경영·사무'(6.4%) 등이 꼽혔다. /한용수 기자

장안대 현장실습 협력사업 2년 연속 선정

스타일리스트와 패션디자이너 참여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 운영대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은 경기도 관내 대학을 선정해 학생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산업체 직무분야에서 견습생 또는 연수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장안대 학생들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받고, 기업들은 맞춤형 인재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참여학과는 스타일리스트과, 패션디자이너과로 장안대는 12개 협력기업에 파견할 졸업예정자 30명을 각 학과에서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지난해 장안대 학생들이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에 참여해 현장실습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장안대학교

장안대 취업지원센터 주윤환 센터장은 "참여 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취업에 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직장생활 에티켓과 취업 마인드를 고취하게 될 것"이라며 "파견 학생이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상호간 높은 만족도로 장기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절차 및 일정>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 수렴	공론화 범위 결정	공론화 의제 선정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협의)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4~5월	5월	6월	6~7월	7월	8월초

/자료=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개편 '첫 국민제안' 내일 충남대서

현재 중학교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듣는 자리가 오는 3일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

령)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열린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열린마당은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10일(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 14일(부산 백스코 컨벤션홀), 17일(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잇따라 열린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자유발언과 서면,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주제토론포럼(www.eduvision.go.kr)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